

지역 소식통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상권활성화 리모델링 지원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협의체 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부안군문화재단 상권활성화추진단', '매화종류 마을 주민협의회'와 공동업무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부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항집), 부안군문화재단 상권활성추진단(단장 오승현), 매화종류마을 주민협의회(대표 변영배)가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부안군 내 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을 약속하고 거점시설 '창업플랫폼' 사용과 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과 관리에 대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항집 부안군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간지원조직과 주민협의체 간 협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매우 발전적이고 앞으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안군이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의 대표주자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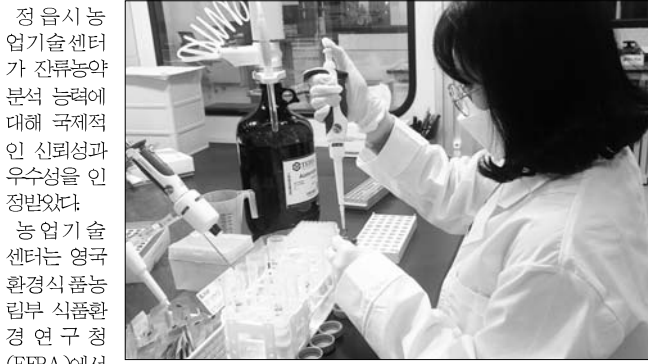
고창교육지원청, 청소년 문화공간 설계 T/F팀 모집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주)은 청소년자치문화공간의 참여설계를 위한 마을교사를 모집한다. 청소년자치문화공간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적 자치문화를 경험하고 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참여설계에 참여할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 고창 청소년자치문화공간은 고창중학교 농구장 부지에 1층 놀이공간, 2층 문화공간, 3층 자치공간으로 총 3개 층으로 구성된다.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설계공모가 진행중이며, 8월부터 참여설계 T/F팀이 활동할 계획이다. 참여설계 T/F팀은 고창학생참여위원, 고창진로진학지원단 교사, 마을교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식품 국제숙련도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능력 세계적 신뢰성·우수성 입증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잔류농약 분석 능력에 대해 국제적인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농업기술센터는 영국 환경식품농업부 식품환경 연구 센터(FERA)에서 주관한 '2022년 식품분야 국제숙련도 평가(FAPAS)'에서 잔류농약 분석 능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수질 등 10여 개 분야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는 국제 평가대회다.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평가로 정읍시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분석실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 337㎡ 규모에 전자현미경, 기기분석실 등의 시설과 잔류농약 463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농산물 안전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의 농산물 시료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 등록증)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

고창군, 의료기관 일원화

고창군보건당국이 코로나19와 관련, 진료 의료기관이 일원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통해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재택치료 격리기간 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관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22개소가 지정돼 운영중이다

이 중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도 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24시간 전화 문의 가능한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보건소 063-560-8580,8581)도 계속 운영된다. 고위험군 환자는 24시간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히 입원하도록 상시 협조 체

계도 구축된다. 고창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창군 관내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원스톱진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수직 인수위, '군민행복 활력고창' 청사진 담은 백서 발간

민선8기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인수위 활동 백서를 발간해 심덕섭 고창군수에게 전달했다.

백서에는 군정비전과 목표, 공약사업, 활동화보, 인수위 활동내용, 당선인 활동내용, 취임식 행사 등 인수위 출범부터 취임과정의 활동들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해 담았다.

민선8기 고창군수직 인수위는 2개 분과에 15명의 인수위원이 참여해 활발히 활동했다. 출범 후 곧바로 부서 핵심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등 군정 파악을 위해 매진했다. 또 군정목표 실현을 위한 6개분야

공약사업을 꼼꼼히 살피고 수차례의 자체회의 진행, 군민 의견수렴, 정책제안의 과정을 거쳐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까지 바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실무형 인수위로 70여개의 군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김인호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민선8기 고창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인수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고창을 열고 자긍심 넘치는 고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 백서는 군정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인수위원회에서 정리한 공약과 제안은 검토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 289호) 연못의 연꽃이 개화했다.

단아한 자태 뽐내는 연꽃 향연

정읍 태인면 피향정, 이번 주부터 개화 내달 중순까지 절정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불리는 정읍시 태인면 피향정(보물 제 289호) 연못의 연꽃이 개화했다.

이달 하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연꽃은 서서히 수면 위를 가득 채우며 탐방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녹색 잎과 연분홍 꽃봉오리들의 어우러짐이 눈을 즐겁게 하고, 바람 끝에 물어오는 은은한 향이 코끝을 간질하게 한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유명한 피향정 연꽃 개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피향정 연꽃은 이번 주부터 개화에 내달 중순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못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름

다운 한옥 정자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피향정 연꽃 자태는 전국 최고다. 피향정은 예로부터 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란 의미로 '호남제일정(湖南第一亭)'이라 일컬어진다. 원래 정자 앞뒤로 상연지와 하연지가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었으나 상연지는 1900년대 초 메워지고 현재는 하연지만 남아 있다.

연못에 연꽃이 피면 그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게 퍼져 '피향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향정의 아름다운 모습과 분홍빛 연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며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민원실 폭언·폭행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정읍시는 시청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7일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비상 상황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행할 경우를 가정해 CCTV와 녹음 전화 운영상태, 공직자 민원 응대 메뉴얼에 따른 신속한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실제 비상벨을 호출해 경찰서와 보안경비업체가 출동에서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상황별 대응의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정읍경찰서 상황실과 직접 연결된 비상벨을 이용해 경찰관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는 실제상황을 연출해 훈련의 효과를 높였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효과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3개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도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비상벨과 CCTV, 녹음 전화 등을 설치했으며, 8월 중에는 읍면동별 자체 모의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화수 시장은 "최근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대민행정이 어려운 요즘,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